

- 주요 뉴스: 연준 파월 의장 관세로 인한 물가 불확실성 경계 대형은행 자본규제 완화 추진
 - 미국 트럼프, 중동에서의 전쟁은 종료, 다음 주 이란과 회담 진행할 예정
 - NATO, 방위비 목표 GDP의 5%로 상향 합의. 미국 트럼프도 지지 표명
 - 일본은행 타무라 위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금리인상 필요할 소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경제적·지정학적 불확실성, 가을 금리인하 전망 등이 영향
 - 주가 약보합[-0.00%], 달러화 약세[-0.2%], 금리 약보합[-0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반도체 중심 기술주 강세 속 차익 매물 출회 등으로 약보합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관세 유예 시한 임박에 따른 긴장감 등으로 0.7%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이란-이스라엘 휴전 영향 지속되며 하락 마감
유로화 가치는 0.4% 상승, 엔화 가치는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9월 금리인하 가능성 등으로 약보합
독일은 국방비 증액 계획 등으로 2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356.9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59.4원, 0.2% 하락). 한국 CDS 약보합

		6/25일	6/24일	전일대비			6/25일	6/2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092.2	6,092.2	-0.00%	국채 금리 10y	미국	4.29%	4.29%	-0bp
	유럽	536.98	540.98	-0.74%		독일	2.57%	2.54%	+2bp
	중국	3,456.0	3,420.6	+1.04%		영국	4.48%	4.47%	+1bp
	일본	38,942	38,791	+0.39%	CDS 5y	한국	27bp	27bp	-0bp
	한국	3,108.3	3,103.6	+0.15%		중국	51bp	50bp	+1bp
환율	달러지수	97.68	97.86	-0.18%	위험 지표	EMBI+	-	373	-
	유로화	1.1659	1.1609	+0.43%		VIX	16.76	17.48	-4.12%
	엔화	145.24	144.94	-0.21%		WTI유	64.92	64.37	+0.85%
	위안화	7.1741	7.1716	-0.03%	원자재	구리	491.8	487.3	+0.92%
	원화	1,362.4	1,360.2	-0.16%		금	3,332.3	3,323.7	+0.2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 파월 의장, 관세로 인한 물가 불확실성 경계. 대형은행 자본규제 완화 추진

- 파월 의장은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하여 관세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언급. 누가 관세를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인데, 이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부연. 아울러 미국 경제가 강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점진적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
- 보스턴 연은의 콜린스 총재는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때까지 능동적으로 인내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 향후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이러한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부연
- 시장에서는 특별히 예상하지 못했던 혼란이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연준의 금리인하는 9월을 시작으로 연내 2회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BMO Private Wealth). CME의 FedWatch는 연내 3회의 금리인하(9월, 10월, 12월, 각 0.25%p)를 전망했는데, 이는 이전(2회)에 비해 다소 늘어난 모습
- 한편, 연준은 대형은행의 핵심 자본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 구체적으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공개 의견 수렴에 착수. 이는 자본 인식에서 국채와 고위험 자산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대형은행의 국채매입을 확대시키기 위한 의도
- 다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자본 규정 완화가 대형은행 관련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채 매입 확대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트럼프, 중동에서의 전쟁은 종료. 다음 주 이란과 회담 진행할 예정

-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서의 전쟁이 끝났으며, 다음 주 이란 측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 다만 핵무기 포기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이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임을 시사
- 또한 이란은 오랫동안 핵 프로그램에 관여했으나, 더 이상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 CIA는 이란의 핵시설 재건에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

■ 미국 백악관, 트럼프 정부의 예산과 정책으로 경제성장 촉진·재정적자 축소 기대

- 스티븐 미란 경제자문위원장은 트럼프 정부 정책에 따른 재정적자 감소 규모는 향후 10년 동안 8.5조~1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감세 및 규제완화 등으로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고 이에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다만 이는 재정적자의 2.8조달러 증가를 예상한 의회예산처(CBO)와는 의견이 다른 상황
- 이날 발표된 5월 신규주택판매(연환산)는 62.3만채로 전월(72.2만채) 대비 감소. 이는 높은 수준의 금리 지속과 점진적인 고용 둔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NATO, 방위비 목표 GDP의 5%로 상향 합의. 미국 트럼프도 지지 표명

-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정상회의 이후 `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현행 2%)까지 높인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은 공동선언 발표. 다만 32개 회원국 가운데 스페인은 지침을 거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지지하며, 스페인은 자국과의 무역협상에서 GDP 5%의 2배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

■ 중국 시진핑, 브릭스 정상회의 불참. 일부는 친미 행보 국가에 보낸 경고로 해석

- 시진핑 주석은 다음 주 예정된 브릭스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발표. 시진핑 주석이 그 동안 미국 견제를 위한 세력 확장에 집중했기에 이는 이례적 행태.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최근 친미 행보를 보이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로 평가
- 리창 총리도 무역이 정치 및 안보를 문제로 삼아서는 곤란하다고 지적. 아울러 자국 경제의 고성장을 위해 소비주도 경제 모델로의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강조

■ 일본은행 타무라 위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금리인상 필요할 소지

- 타무라 위원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지만, 관세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경우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면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 아울러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이는 일본은행 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6/26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및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발언, 1/4분기 GDP
- 미국 5월 내구재 수주, 6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국채시장의 안정, 재정 우려 불구하고 장기채 발행 축소 기대가 반영 - WSI

(Bond Investors Stay Cool Despite Heated Debate Over Government Borrowing)

- 5월에 국채 가격이 급락했으나 이후 가을 시기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반등에 성공. 이에 재정적자 우려에도 국채시장은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제기. 특히 공화당이 추진하는 감세안으로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나, 복지 지출 삭감과 관세 수입 증가가 이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기대로 우려가 다소 완화
- 행정부 역시 2~30년 장기채 발행 축소 및 1년 이하 단기채 발행 비중 확대에 나설 계획인데, 이는 시장 부담을 줄이겠다는 신호로 인식. 재무부가 올해 장기 국채 입찰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자 전문가들은 증액 시기를 '26년 이후로 예상. 아울러 머니마켓펀드 등의 수요는 단기 국채 공급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기대

■ 미국의 10% 기본 관세 유지, 세수 증대 예상되지만 예외주의는 약화될 가능성 - 블룸버그

(There's Another Ceasefire That's Ticking)

- 90일 동안 유예되었던 관세 부과가 7/8일 종료되지만, 협상 윤곽이 드러난 국가는 영국이 유일. 한편, 트럼프의 TACO(위협 후 후퇴), 예상보다 작은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 이란 전쟁 등으로 무역정책에 대한 관심은 저하. 일부에서는 1년의 유예 연장을 예상하나(Apollo Global), 모든 국가에 부과된 10% 기본 관세는 유지될 전망
- 다른 국가들은 이를 승리로 착각하겠지만, 미국 세수는 연간 4천억달러 늘어 재정 적자 해소에 도움. 하지만, 여전히 높은 기본 관세율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경제에 타격을 미칠 우려. 이는 예외주의 약화, 상승하는 주가의 방향 전환 등을 초래할 소지

■ 연준의 통화정책,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신중한 접근이 최선 - 블룸버그

(Federal Reserve has no alternative to 'wait and see')

- 중동 전쟁과 관세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은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과 실업 증가를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준은 정책적 곤경에 직면. 백악관의 금리인하 압박이 거센 가운데, 4월 근원 PCE 물가지수의 상승세 약화와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증가 등 일부 지표들은 금리인하 논리를 뒷받침
- 그러나 문제는 관세와 에너지 비용 향방이 불투명하다는 점. 6월 FOMC에서 점도표 역시 금리 전망이 엇갈리며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중한 접근(wait and see)이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 백악관도 연준의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책무를 존중하고 무역정책의 안정성을 조속히 회복할 필요

■ 미국의 고용 둔화 신호, 연준의 대책 마련을 요구 - 블룸버그

(This Time Is Different for the US Economy)

-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을 지탱했던 구인건수 증가 등 이례적인 지지선이 사라지고 '24년 초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가 증가. 아울러 '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회귀한 구인/구직 비율, 청년층 실업률 상승 등 고용둔화 신호가 증가. 시를 활용한 기업 경영 역시 향후 채용 확대 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
- 또한, 남서부지역의 주택 재고 증가와 코어로직/케이스-실러 주택가격격지수의 2개월 연속 하락(3~4월)은 건설업체 해고 증가의 전조일 우려. 행정부 효율성 강화 등으로 정부 고용도 정체. 이에 노동 및 주택경기의 하방 위험은 지속될 가능성. 연준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고용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높은 수준의 미국 주가, 정당성 확보 위해 기업이익 증가 혹은 금리인하 필요 - 블룸버그

(S&P 500 Needs Profit Boom or Fed Cuts to Justify Lofty Levels)

■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금융위기 직전 수준 도달, 무역불균형 심화의 신호일 소지 - Reuters

(US current account gap clocks pre-2008 crash milestone)

■ 對美 해외직접투자 감소, 트럼프의 투자 유치 공약과 상반된 현실을 반영 - Reuters

(US foreign investment slump - anomaly or warning?)

■ 미국 달러화의 변동성 감소, 캐리 트레이드 차입 통화로서의 매력을 제고 - 블룸버그

(Dollar's Falling Volatility Creates Appeal as Carry-Trade Funder)

■ 미국 내 폭염, 기후변화 논쟁을 넘어 실질적으로 경제·안보를 위협 - NYT

(We may not agree on climate, but we all feel the heat)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